

U대회선수촌 아파트 분양 조합원들 '속얇이'

동남향 900가구 거래가, 분양가보다 1000만원까지 떨어져 재건축 주공아파트 권리가액도 매매가보다 2000만원 적어

광주 서구 옛 화정주공아파트에 건설 중인 U대회선수촌 아파트가 87%의 분양률을 기록중인 가운데 일부 가구의 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최고 1000만원 이상 하락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민고 분양받았는데 재산 손해가 막대하다"며 속얇이를 하고 있다.

4일 광주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보다 거래가격이 하락한 가구

는 선수촌 아파트 3726가구 중 900여 가구에 이른다.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 35개 동은 모두 '1'자 형식으로 지어 지는 데, 각동마다 남향 배치의 2·3·4호 라인을 제외한 동남향 배치의 1호 라인 900여 가구가 문제가 됐다. 1호 라인은 남향 배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동이라도 다른 라인에 비해 거래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다.

선수촌 아파트 현장 인근 한 공인중

개사는 "전용면적 84㎡(약 34평형) 기준 분양가는 2억3500~4500만원인데, 동남향 배치 가구의 경우 분양가에서 300만~700만원이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며 "조합원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가격을 깎아 파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첨을 통해 동남향 배치 세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속얇이를 하고 있다. 위치가 좋다고 알려진 3

호 라인의 경우 일부 프리미엄까지 붙었는데 동남향에 배치된 입주자들은 도리어 제가격을 못받기 때문이다.

동남향 배치 가구를 분양받은 세대의 불만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이 분양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권리가액도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옛 주공아파트 13평 기준으로 현대건설은 조합원에게 평균권리가액 5094만원을 지급했다.

주공아파트가 매매될 당시 13평 기준 6300~70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2000만원 남짓 적은 금액이다. 이렇다보니 동남향 배치로 분양받은 조합원은 최고 3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생겼다.

조합원 김모(43)씨는 "급전이 필요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려 했는데 재산 손해를 생각하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동남향 배치 가구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병어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U대회선수촌 아파트는 옛 주공아파트 부지 15만6312㎡에 지상 15~33층 규모, 총 3726가구(전용면적 기준 59㎡ 390가구, 84㎡ 3126가구, 101㎡ 210가구)로 현대건설이 짓고 있다. 지난 3월29일 기준 3726가구 중 3245가구가 분양돼 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기제품 홈쇼핑 판매 신청하세요

중기중앙회 20일까지 접수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4일 전남도와 함께 지난해 이어 중소기업 제품의 TV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전남도가 실시해 효과를 거뒀으며 중소기업진흥공공사업진흥기금(중기진흥기금)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및 유통망 개척 등을 돕고 있다.

홈쇼핑 사업 지원내용은 홈쇼

핑 입점비를 기업당 최대 1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전남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농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상품이미지 등을 갖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 4월 2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전남도 및 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62-955-9966)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내·역외 탈세, 사채업자 등 224명 세무조사 지하경제 양성화 신호탄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인과 역외탈세 혐의자,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덕중 청장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세청은 올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조사비율을 높이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인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혐의 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력 대부업자 117명, 탈세 혐의가 있는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한 달간 금융

조사·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 교육을 마친 조사국 직원 927명이 대거 투입됐다.

조사대상 대재산가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해 편법 상속·증여행위가 중점 검증된다. 기업인 중에는 100대 기업의 사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11건은 이날부터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정하는 성과를 냈다. 역외탈세자의 자 202명에게선 8천258억원,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에게선 2천897억원, 전자상거래 탈세조사에서는 893억원을 각각 추정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화려한 봄 아웃도어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열린 2013 S/S 아웃도어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화려함과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아웃도어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롯데백화점 제공>

현대·기아차, 美 190만·국내 16만대 리콜

브레이크·에어백 결함

현대·기아차가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에 들어간다. 미국에선 지난해 11월 '연비하향 조정'으로 문제가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초대형 악재에 부딪혔다.

현대·기아차는 3일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190만대를 브레이크 등 스위치 또는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리콜되는 차량은 2007~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 쿼페와 산타페, 소나타, 투싼, 베라쿠르스 등 현대차 모델

과 옵티마, 론도, 세도나, 쏘렌토, 쏘울, 스포티지 등 기아차 모델이다. 리콜 차량 대수는 현대차가 105만9824대, 기아차가 62만3658대다. 리콜이 유는 브레이크등 스위치 결함 때문이다. 미국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은 이를 차량에서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거나 제동장치를 밟아도 크루즈컨트롤(정속주행장치)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도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 작동 불량을 이유로 16만대 가량을 리콜할 계획이다. 현대차 리콜 대상은 2009년 7월~2010

년 3월에 제조된 구형 아반떼, 2010년 6월~2011년 6월에 제조된 구형 싼타페, 2008년 9~11월에 제조된 베라쿠르스 등 총 11만여 대다. 기아차는 2010년 6~7월에 제조된 구형 카렌스, 2010년 10월~2011년 4월 제조된 쏘렌토, 2010년 6월~2011년 6월 제조된 쏘울 등 총 5만여 대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한국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규와 맞게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통시장·골목상권 특별법 10년 연장”

산자부, 당정협의회 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의 수명연장이 추진된다.

4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6년 말에 만료되는 전통시장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으로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전날

열린 실무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상인교육 등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2002~2012년까지 전국 1007개 시

장에 지원한 돈은 3조1000억원(국비 2조원, 지방비 1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못했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전통시장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 2년 전인 2015년 초부터 법률 개정에 필요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세무리당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무역보험공사 조계룡 사장

광주전남 수출기업 간담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계룡 사장은 4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주)대호산업 등 광주전남 15개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신규 수출거래선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와 최근 엔저를 환율 하락에 따른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

부차원의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환율보험 지원한도를 1.5조원을 확대했고, 하반기 기업들의 추가적 수요를 반영해 환율보험 지원 한도를 추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정읍시민과 벚꽃길 상춘객을 위한

2013 벚꽃마당이 거리문화공연

일 시 2013년 4월 6일(토) ~ 4월 14일(일)
장 소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특설무대&중앙로

| 일시 | 장소 | 행사명 | 행사내용 | 주관·단체 | |
|-----------|-------------|---------|--------------------|---|------------------------|
| 4월 6일(토) | 15:00~17:00 | 어린이축구장 | 통기타 & 색소폰 | 7080통기타 라이브 색소폰의 향연 | PP하모니 정읍색소폰클럽 |
| 4월 7일(일) | 15:00~17:00 | 어린이축구장 | 발리댄스 | 유아부, 성인부 발리댄스 공연 | 육하나발리 & 발리코리아 |
| 4월 9일(화) | 15:00~16:00 | 정읍우체국 앞 | 벚꽃길 가요무대 | 경음악 연주, 아코디언 색소폰, 톱연주, 향토가수 | 정읍문화원 샘골은빛중합연예단 |
| | 19:00~20:00 | 정읍우체국 앞 | 벚꽃 농악 한 마당 | 농악 마당 판국 | 정읍시립 농악단 |
| 4월 10일(수) | 17:00~18:00 | 정읍우체국 앞 | 7080 락밴드 공연 | 7080밴드 & 그룹댄스 | J클럽 & 두산동호회 |
| | 19:00~20:00 | 정읍우체국 앞 | 벚꽃 농악 한 마당 | 농악 마당 판국 | 정읍시립 농악단 |
| 4월 11일(목) | 17:00~18:00 | 정읍우체국 앞 | 벚꽃음악회 | 메이플 빅밴드 팝 재즈 연주 및 노래 | 실용음악협회 |
| | 19:00~20:00 | 정읍우체국 앞 | 벚꽃 농악 한 마당 | 농악 마당 판국 | 정읍시립 농악단 |
| 4월 12일(금) | 17:00~18:00 | 어린이축구장 | 벚꽃과 함께 하는 시낭송 | 시낭송 발표회 (시와 음악) | 시영원(時詠園) (정읍예술제 연계) |
| 4월 13일(토) | 15:00~16:00 | 어린이축구장 | 우리가락 열~쑤 | 가야금 병창, 부채춤, 설장고 진도북춤, 남도민요, 모듬북 | 단풍미인예술단 (정읍예술제 연계) |
| 4월 14일(일) | 15:00~16:30 | 어린이축구장 |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퓨전예술공연 | 정읍팝스앙상블 팝 경음악 연주 댄스스포츠 색소폰, 트럼펫 팬클럽, 향토가수 | 정읍예술 정읍음악협회 (정읍예술제 연계) |

부대시설 **벚꽃길 점등 시설(삼골다리~관동도로 1km 구간 / 6일~14일)**